

哲學的 思惟의 理解

根源的 了解로서의 그 構造關聯(一)

金基錫

現代에 이르러 사람들은 哲學에 대하여 유난히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들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希臘哲學이니 獨逸의 理性主義니 하는 말을 들읍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들 또는 스피노자, 칸트, 헤겔같은 이들은 만흔 사람에게 依하여 研究되고 解釋되고 主張됩니다.

哲學 史의 우에 그 이름이 오르고 안 오르고 간에 一生을마쳐 哲學에 나아간 이들이 단열 단스들에만 그치겠습니까. 이들은 진실로 그 빼어난 思索, 그 향기로운 生涯를 通하여 길이 지워버릴 길이 없는 久遠한 影響을 人間의 生活및 思索에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哲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過去에 哲學을 길러나아 왔고 이제 現在에 있어서 哲學을 만히 論議하고들 잇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人間의 知性的

發展을 말하면서 哲學이 科學에게 그 자리를 내여 노흔지 오래 옳다고 합니다.

哲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로서 이 科學마저 깨쳐 알 길이 없거니와 실상 그리타고하면 哲學하고 科學하고는 서로 마조서는 것이 되어야하고, 하나가 하나를 否定하는 것이 되어야 할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哲學은 科學아닌 哲學이 되어야 하고, 科學은 哲學이 아닌 科學이 되어야 할 모양입니다. 그러치 안코서야 어떻게 하여서 哲學이 가고 哲學이 오고하는 한 개 事件또는 變動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人間을 理性的 存在로 보고 이 人間理性이 神의 理性을 사모하는

鄉愁를 가르쳐 哲學이라고 불려서 조타고 합니다.

人間은 무슨 理性이란것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밖게 行動이니 實踐이니하

는것을 가지지 안겠습니까. 이 理性이나 行動을 가지기 위하여는 또 그 根源, 그 地盤되는것을 가져야 하지 안겠습니까.

哲學은 어느 意味에 있어서 久遠한 것을 찾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타고 하여 이 現實存在에 대한 理解를 斷念하고 한갓 『이데-』의 世界에 향하는 헛된 憧憬에 잠겨서 필 것입니까. 永遠을 생각하고 無限을 생각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든지 瞬間과 함께 有限과 함께 생각하지 안허서는 안됩니다. 瞬間을 떠난

永遠 有限을 떠난 無限, 現實을 떠난 理念, 特殊를 떠난 普遍이란 것이 잇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을 에워싼 것이 存在이요. 또 그 世界인것을 압니다. 存在의 世界에 대한 根源的 解明, 여기에서 哲學의 久遠한 또 眞實한 □□가 마련되지 안겠습니까. 이 存在의 世界는 그 자신 客觀的 實在로서의 意味를 가져야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歷史, 社會 및 文化가 거기에서 自己를 現成시키는 地盤또는 原野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득한 存在의 世界는 人間의 思惟를부 른지 벌써 오랩니다. 아하 얼마나 만흔 사람들이 그 한가락 그 한구석을 살피고 짓기고 또 헤아려나려 왓겠습니까.

實在 를 가르쳐 精神이라거니 物質이라거니하는 부질없는 過誤에 떠러지기는 헛을 지언정 人間의 思惟가 본대 存在에 대한 思惟에서 出發했고 또 그것을 어느程度까지 길러나야 온 것은 그 수고가 컸다고 보아서 좃습니다. 人間의 가지는 一切의 理性的 遺産은 그것이 모두 이 存在 에 대한 분명히는 이 存在로도부러의 交涉에 대한 人間의 理解와 表現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무론 人間이 思惟를 위해서 存在한다고는 생각하지 안읍니다. 그러나 思惟는 분명히 行動과 함께 人間實存의 한 개 뚜렷한 徵表가 아니겠습니까.

行動 없는 思惟가 잇을 수 없는 한에서 思惟와 갈린 行動이란것이 잇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진실로 이 무엇을 不斷히 생각하고 살피고 이야기 하려는 한 개 深遠한 衝動이 주어 짓읍니다.

哲學이란 實在 및 그 世界의 근본 얼굴을 곱히 省察해 드러가는 生의 한 實現또는 實踐에 지나지 안읍니다. 學術과 道德과 藝術과 宗教, 이런 것들에게 대하여 哲學은 어떤 모양의 聯關을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哲學은 아시다싶이 哲學하는 일이요. 哲學하는 일은 □□□觀想또는 諦念은 아닙니다.

哲學은 勿論 한 개 思惟를 意味하기는합니다. 그러나 眞實한 思惟는 그것이

現實을 反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現實에 향하는 通路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人間의 思惟가 現實을 理解하고 批判하기에 이르는 根據가 바로 여기에서 構成된다고 보아서 무방합니다.

文化는 본대 生의 表現으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存在의 世界에 열매이는 그 方向에 따라 각각 빛 다른 領野를 꾸려 나아갑니다. 人間의 一切의 理性的 活動이 가장 深遠한 原理的 省察에 드러설 때 거기에 한 개 了解의 世界가 버러지는데, 이 了解의 世界가 곧 哲學的 思惟를 胚胎, 育成시키는 根源이요 地盤입니다. 人間에게 理性이란것이 주어졌고 또 人間을 예워싼 아득한 存在의 世界가 마조서는 한에서 人間의 思惟가 어떤對象에 향하여 움죽이게 되고 또 그 現實構造를 說明하려고 힘쓰는 것은 진실로 人間生活의 한 개 原本衝動이 아닐 수 없습니다.